

대행 스님

바로 우리 실생활 속에 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잘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항상 한 도반으로서 말씀드려 온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에 얼마나 쫓고 쫓기며 왔겠습니까. 마음이 진화되니까 몸도 바뀌어지고 이렇게 돼서 인간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비디오테이프나 카세트테이프에 아마 그 말이 실려 있으며 또는 회보에도 실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 금방 딴 말을 할 때 벌써 한마디 한 거는 과거로 돌아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구에 매달리고 글자 풀이에 매달린다면 이 공부는 천부당만부당하게 돌아가고 말아 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중세계의 쫓고 쫓기는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해서, 억겁을 통하고 또는 끝 간 데 없이 그 차원 따라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끌려 다니고, 정신세계의 노예요 물질세계의 노예로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물질세계에만 끄달려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작 마음의 눈이 없다면 자기가 보고 듣는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죽만 보지 속은 못 보고 항상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활하는 데도 하나도 이익이 없게 되죠. 여러분은 인간의 바른쪽 왼쪽 두뇌는 우리가 물질세계로써 율동하는 것과 모든 거를 거기다 넣을 수 있는 내 마음을 조화롭게 하고 중도로써 중용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여기 의학 박사들도 많겠지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이고 내는 거기서 점검을 해서 들이고 내는 것을 바로 중심, 중도(中道),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모른다면 그대로 물질에 끄달리고 정신에 끄달리고, 내 인과에 끄달리며 살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기초가 든든치 못하면 집을 짓다가도 무너지는 수가 있고 금이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육신 속에 그 많은 인과 업으로 인해서 악업 선업이 뭉쳐서 수도 없이 들고 나는 것, 좋은 거는 잠시 잠깐이고 언짢은 것, 화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강도질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술 먹고 아수라장을 만드는 것, 모든 이 일체가 다, 그러한 생각이 나게 하는 그놈들이 어딨느냐는 얘깁니다. 여러분 그 몸속에 다 의식들로 돼 있죠.

이것을 자세히 말하자면 정자와 난자가 한데 합쳐서, 수만 개가 헤아릴 수 없이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하나가 뽑히는 것이 부모에게 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자기가 과거에 살던 그 악업 선업을 짊어진 채 바로 거기에 부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삼신(三神)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말을 또 하고 또 하느냐? 이것을 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뭉쳐진 그 자체, 악업 선업이 지금 현실로 모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몸에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또 여러분이 강요당해서 악업 선업에 휘말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식들은 좋고 나쁘고, 좋은 일이고 언짢은 일이고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쁘고 좋고를 너무나 잘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로 중심을 지키면서 다스리는 겁니다. 들이는 것도 다스려서 들이고 내는 것도 다스려서 낸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통해서 두뇌에 그렇게 통신이 되게 돼 있습니다. 깊이 잠재해 있는 그러한 도심이라고 할까. 또 중간에 있는 도심으로 들게 하는 마음.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들이는 그것을 거기다 맡겨야만이 그렇게 되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자기라고 시각적이나 감각적으로다가 그냥 그냥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이고 내일 일이고 자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까? 생각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컴퓨터에서 그렇게 나오게끔 자동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중심에, 중도(中道)에, 중용에, 그리고 분수를 지키는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을 리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서 홀연히 밝아진다 이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수없이 나오는 그것을 다스리는 마음이 누가 되지 않고 모든 점에서 그 중용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라면, 조금도 어긋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 뇌, 바른쪽 뇌 이 중심적인 그 표현도 그렇게 두뇌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양 가장이로 통신망이 그렇게 돼 있죠. 수없이 귀 밑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게 우리 마음속에서 두뇌로 올라가면 두뇌에서 전부 사대(四大)로 통신을 해서 그렇게 다스려 나간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사람 구실을 못합니다. 불제자가 못 되는 거죠. 우리가 불제자라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우리가 말하고 사는 것이 교(敎)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합니다. 풀 한 포기만 살아 있어도 불교는 살아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듣고도, 들은 사이가 없으면서도 들은 건 들은 것이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이등은 없다, 일등이라야 한다고 말하듯이 우리 마음공부 하는 것도 이등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등을 했을 때는 부처님도, 일체제불도, 일체 중생도 정말 진드기 하나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내가 섭류해서 내 한마음으로서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만이, 그때에 바로 그대로 "부처님은 부처님이요, 중생은 중생이요, 풀은 풀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거기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도 얻을 바가 없고, 그 얻는 것조차도 일등으로 이겨서 나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 모든 일체가 다 한마음으로 구성되고 한마음으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선 한마음을 쓰고, 때에 따라선 뭐, 두 마음으로도 쓸 수 있고, 세 마음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원인이 과학적으로 지금 원자에서 입자로, 입자에서 분자로 화해서 지구도 지키고 인간도 지킨다는 사실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몸속에 있는 의식들을 그렇게 간추려 나간다면, 예를 들어서 들이는 거를 거기다 모든 걸 맡기고 거기서 주장하는 겁니다, 주인공에서.

'한마음' 하는 거는 여러분 몸속에 그 헤아릴 수 없는 악업 선업이 업이 돼 가지고, 그 속에서 유전성이라든가 영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업보성이나 인과성이 모두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팔자 운명이 바로 그런 데서 벌어지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한마음이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내 내면의 세계부터 알아야 바깥 세계를 알지 내 내면의 세계를 모르고야 어찌 바깥 세계를 알겠습니까? 그럼으로써 내 마음에 있는 이 중생들을 다 알고 나면 한마음으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위장, 척수, 척추, 콩팥, 심장, 간장, 식도, 소장, 대장 등 하나하나의 세포들이 모두가 집을 짓고 소임을 맡아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말입니다, 악은 악으로만 나갑니다. 선은 돈을 주고 악으로 하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몸속에 악이 많고 선이 적으면 악의적인 문제가 수없이 나옵니다. 자꾸 안되게 하고 자꾸 남을 증오하게 하고 모든 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얘깁니다. 남을 때려죽이고 남을 해롭게 해서만 악이 아닙니다. 남을 둘로 보지 않아야 되는데 둘로 보고 항상 남을 원망하고,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상대가 생겼으며 세상이 벌어졌을까?' 하고 내 탓으로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의 탓으로 돌리고 이런다면 이 공부에는 여간 지장이 많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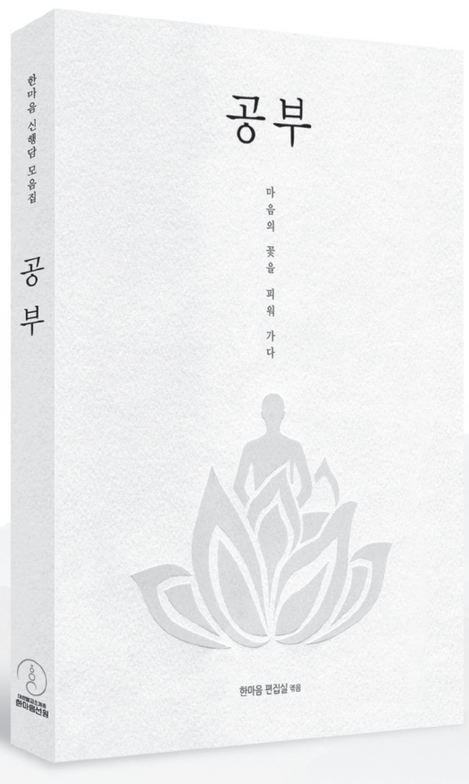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는다면, 눈 밝아져서 마음 안의 눈과 육안으로 보는 눈이 겸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들이고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고 점검을 해서 안으로 들입니다. 안으로 들여야만이 모두 통신이 되고 또 안으로 들이는 그 마음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면은 전부 보살로 화한다 이 소립니다. 악업 선업이 둘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로 돌아가니, 모든 것이 그 끝 간 데 없는 진리지마는 그것이 하나도

☞ A18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